



12월 15일

통권 110 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0.12.16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2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안녕, 국가보안법-



지난 12월 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두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이 치러졌다.

'안녕-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성황리에 끝

났고 사람들은 저마다 함성을 지니고 헤어졌다. 그 함성은 그들로부터 다시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노래의 한 구절처럼 '참 세상 자유 위하여' 거센 강물을 저어가리라. 그리고 다음 공연은 분노의 함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축제의 함성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품는다. <관련기사 14쪽>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Tel. 02-763-2606, 765-5282 Fax. 745-5604

국가보안법과 세계인권선언과 노벨평화상

- 6·15 남북공동선언에 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발의하여 국회에 내놓았다.

마침 세계인권선언 52돌을 맞게 되고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날을 바로 앞둔 때여서 국회의 이 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만큼, 국민 여론 80%가 넘게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하고 있는 터에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다 해야 할 의원으로서 이같은 폐지 법률안을 내놓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등 시대역행적 냉전 수구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물지각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비싼 세비만 써가며 소모적 정쟁만 해 오던 정치권에서 이 뜻밖의 법률안 제출은 모처럼만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법안 제출이 곧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어지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대폭 개정을 말해왔던 집권여당에서조차 정기국회 회기 마감에 지난 오늘까지 법안내용을 발표하거나 국회에 제출도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에서는 개정마저 반대한다는 당론이고 보면 오늘의 정치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부질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그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며 국민대표 기관이다.

정쟁으로 일삼는 당론에 따르기 이전에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 해야 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당파적 이익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세와 분단시대를 살며 반세기가 넘게 고통받아 오고 있는 민족적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바로 6·15 남북공동선언시대,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가는 민족자주의 역사적 임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의원들의 공동

발의 입법취지에서도 말했듯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주민들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게 된' 사실을 국회의원 모두는 옳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7.4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은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장전으로 외세와 분단이란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국가안보개념은 통일시대 민족안보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작은 차이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안에 국가보안법 폐지 의원입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회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해서 이 법안심리를 포기해서도 안될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될때부터 사상탄압과 정치적 악용,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가능성 등 민중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성 때문에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혔었다.

대부분이 우익세력으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조차 47명의 의원이 이 법의 폐기동의안을 제출할 정도였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민중을 탄압하던 일제 법제를 그대로 이어 받은 이 사상탄압법은 국회에서 줄속처리되어 반세기동안 수많은 애국적 양심세력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면서 반북·반공의 분단고착화와 역대 독재자의 정권안보용으로 악역을 맡아 왔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며 만들어진 세계인권

선언은 생존권을 비롯하여 사상·양심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학문·예술·표현의 자유 등 기본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에서도 '국제사회의 폐지권고, 헌법정신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을 들고 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노벨평화상을 받는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해 오고 있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공안당국자에게도 말했던 국가보안법이 개폐되기 전이라도 이법 적용에서 유연성을 갖고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기까지 통일운동에 헌신해 왔던 청년학생들이 유치원, 초등학교들도 다 하고 있는 그들 자신의 자주적 조직인 학생회를 만들었다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받아 오늘 이 시간에도 쉴새없이 잡혀가고 또 쫓기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지지·서명 했으며 국제인권협약에 가맹하고 노벨평화상 수상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이 같은 기본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감옥엔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사회진보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확신을 갖고 활동한 90여명 양심수들이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

70살 고령에 고혈압과 부정맥증과 위장질환을 앓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나창순 고문, 중증 간경색을 앓고 있는 박경순씨 등 통일애국인사들과, 순수하고 열정으로 조국사랑에 헌신해 왔던 정명기, 강위원 4.5기 한총련 의장 등 청년학생들, 그리고 노동쟁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안대상으로 몰린 노동자들이 갇혀 있다. 이들 양심

수들은 옥중투쟁위원회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으며, 학생운동과 관련 많게는 7년이나 정치수배를 받고 있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진재영 씨 등 학생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200일이 넘게 냉방천막에서 농성중이고 11월 30일 부터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 등 집행간부와 대표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12월 1일부터는 8기 한총련 이희철 의장 등 지도부 일꾼들이 역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12월 12일부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민변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2월 6일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받아 고국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에 대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강만길 교수 등을 공동대표로 결성하여 73년 김대중 납치만행 뒤 헌신적으로 구제운동을 폈던 이들 단체의 귀국보장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국민적 요구를 옹기박아 들어야 한다. 만일 임시국회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미룬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6.15 공동선언 이행의 구체적 실천으로,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따라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흠점이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양심수 전원석방과 300여명의 정치수배자의 해제조치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권오현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오매불망 그리는 가족 품에서 빼앗긴 수 십년을 되찾아야한다”

그의 인생은 곧 갈라진 분단 조국의 역사이다.
그의 성한 곳 없는 육체는 부끄러운 이 시대 열악한 인권의 발자취다.
그의 꺼지지 않는 정열은 신념의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샘솟는 희망이다.
그의 청빈함은 텅 빈 충만함이다.
생사의 고비 고비에서 질기게 목숨을 이어온 것은 오직 통일을 염원했던 간절함이었다.
이제 남은 여생 오매불망 그리는 가족 품에서 빼앗긴 수 십년을 되찾아야 한다.

칠십평생을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가시밭길마다 많은 삶을 살아온 장기수 서옥렬 선생님을 떠올리며 짧게 적어 본 단상이다.

지난 9월 초 비전향 장기수 송환 때 안팎의 이런 저런 이유로 가지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선생님은 요즘 구안와사를 앓으신 이후 신경계통에서 오는 이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 남은 여생 하루 빨리 가족이 있는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셔야 할 선생님을 찾아 뵙고 식민지시대, 분단시대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밑숨을 들어보게 되었다.

선생님은 1928년 1월 17일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 소재지인 팔금도라는 작은 섬에서 아버님 서계술님과 어머님 리경심님 사이에서 5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따뜻하고 풍요한 남도의 어장이었지만 식민지시대 대부분 조선 민중이 그러했듯이 선생님 집안도 가난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어머님의 남다른 교육열 때문에 안좌심상소학교에 입학하게 되

었다. 가까운 섬 가좌도에 있는 학교를 다기기 위해서는 큰 고개를 두 개나 넘어야 했고 나룻터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야만 했다. 풍량이 심한 겨울철엔 눈보라치는 추위뿐 아니라 사나운 물길 때문에 물귀신이 돼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으로 가슴을 조이기도 했었다. 이러한 겨울 학교 가기가 두려워 울며불며 떼쓰기가 일쑤여서 ‘울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초등학교 4년때 정들었던 섬을 떠나지게 된다. 아버님이 천안 근처에 있는 독일인이 경영하는 대선사금회사에 측량사로 취직이 되어 집안 모두가 천안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선생님도 천안 영천국민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학교를 옮기기는 그 뒤에도 이어졌다. 아버님이 경성부청(서울) 도시계획과로 직장을 옮기면서 흑석동으로 셋방을 얻어 이사하게 되고, 1940년 4월 선생님은 서울 미동국민학교 6학년1반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때도 전차를 서울역과 서대문에서 두 번씩이나 갈아타고 다녀야 했다. 그리고, 섬마을 ‘울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상업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때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기에 1945년 3월23일 150명 졸업생 가운데 6등(학급성적은 3등)으로 졸업한다. 학업성적도 좋고 주산부 책임을 지고 있었기에 그 때로서는 매우 힘들었던 조선은행에 입사할 수 있었다. 이 때 이미 일제는 패망의 막다른 길로 들어섰고, 조선은행의 정식 행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장 건설에 ‘보국대’로 동원되기도 했다. 그런 어느 날 일황의 항복방송을 듣게 된다.

“8.15 해방을 맞게 된, 내 나이 18세때의 여름이었습니다. 고회를 넘긴 지금도 해방된 그 날 그 감격의 순간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방된 민중의 흥분된 물결이 거리를 휩쓸고 있던 그 장관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새로운 외세

미군정이 시작되고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민족적 과제는 뜻밖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미군정은 조선민중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을 자신의 신식민지화 정책의 이익에 따라 비호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일제하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감옥에서, 지하에서, 해외에서 고초를 겪은 양심적인 민족주의자와 좌익인사들을 탄압, 투옥, 학살하는 점령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건준’, ‘인민위원회’, ‘보안서’ 등 자주적 조직과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당과 사회단체들은 강제해산 당했지요.”

이러한 해방공간, 선생님께서는 조선은행 목포지점에 근무하면서도 서점마다 새로 채워져 있는 사회주의 사상 도서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관에 접하게 되고, 그에 따른 향학열도 더욱 불타게 되었다. 1946년 7월 서울대학 예과시험과 본시험에 합격했으나 구두시험에 석연치 않게 낙방하고 만다. 그리고, 그 해 말 미군정의 서울국립대학교안(국대안)이란 해괴망칙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면서 ‘서울대를 새로운 식민지 교육정책 총본산으로 삼으려는 야욕’이라며 전국적인 ‘국대안’ 반대투쟁이 벌어졌으며 선생님도 이에 합류하게 된다. 그 뒤 고려대학교 경성대학 경제학과 편입시험에 합격하여 3학년되었을 때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이 때부터 선생님은 생애의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인민군의 서울 입성과 함께 경기상업학교 동창생 ‘김계곤’의 권유로 서울시당에 당원재등록을 제출하고 종로



구역당 체신당국, 철도국당 등에서 사업을 하다 8월에는 의용군에 지원, 9월13일 인민군 후방총국 912부대(자동차운전 양성부대)에 입대하게 된다. 그리고, 인민군 후퇴에 맞춰 재령, 사리원, 중화를 거쳐 평양으로 부대이동을 했다. 평양은 이미 치참할 정도로 미군기의 폭격으로 파괴돼 있었다. 후퇴는 계속되어 개천, 강계를 거쳐 중국 동북지역을 옮겨 운전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반격으로 전황은 반전되고 선생님 부대도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를 거쳐 평양으로 돌아와 후방총국직속 운수 제4대대로 배치, 정식 ‘조선인민군 병사’가 된다. 이 때부터 민주청년동맹에 가맹하여 민청사업도 하면서 중대장과 부대정보위원회 보증으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뒤 1953년 11월23일 인민군 상등병으로 ‘남조선출신 대학생 및 졸업생들을 민족간부로 육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제대하게 된다.

제대한 뒤 강원도 천내군 제4중학교 교원으로 있던 중 1955년 12월 꿈에 그리던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뒤에 정치경제학부로 개편되었다고 함) 2학년 편입학시험에 합격되어 공화국 최고학부에서



대학생 생활을 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교육과 생활의 결합', '이론과 실천의 일원화'를 실천하기 위해 자진하여 전후복구 건설노동에 참가했다.

선생님도 김일성대학 환경조경사업, 학교구내 복구-포장사업, 동평양 상수도

공사, 서평양 하수도공사, 평남북창 청년탄광 인입선 공사 등에 자진 참가했다. 그리고 '인민경제에 있어서 원가의 체계적 저하에 대하여'란 논문으로 1958년 12월 28일 제10회 졸업생이 된다. 1959년 1월부터는 원산교원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원으로 교육부문에서 일하다가 1961년 8월 통일조국의 염원을 안고 남쪽으로 오시게 된다. 그리고, 11년만에 부모님을 뵈게 되었으나 9월 공안당국에 체포, 군사재판에서 무기형을 확정받는다.

선생님 말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연이 있다. 제대하여 강원도 천대군 중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 알게 된 원산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로 부임해 왔던 강순성 선생님과 사랑 이야기다.

"1954년 한 해도 저무는 날, 12월 30일 학교선생님들이 학부형위원장 집에서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연회에서는 나의 신입환영을 겸한다며 연거푸 술을 권하는 바람에 원래 술을 못 먹는 나는 어느새 얼큰히 취하고 말았지요. 과장 가까운 시간에 슬그머니 자리에서 빠져 나와 흰 눈길을 밟으며 실개천가에 다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개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뛰어온 사람은 불문곡직 내 가슴에 와락 안겨왔습니다. 강선생의 이 뜻하지 않은 일에 어이할 바 몰라 '어...어...선생' 하는 소리만 토해 냈었지요."

두 분은 교원으로 함께 있으면서 가슴벅찬 밀애를 거듭하던 끝에 1955년 5중학교 교장의 주례로 민주선전실에서 결혼을 하시게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남쪽으로 내려오실 때 서태길(56년생), 서태현(58년생) 두 자녀를 두게 되었다.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모님과 자녀를 생각하노라면 어느새 담배 한 개피가 다 타들어가게 된다.

10여년만에 가슴벅차게, 하지만 숨죽여 조심스레 만났던 어머니, 형제들에게 결국 몸쓸 형이 되고 말았던 한 달 후 돌아가는 길에 체포되면서 선생님의 운명은 뒤바뀐다. 심한 고문과 형제들까지 동원해 피해를 주면서 차라리 죽은 것만 못한 고초를 겪고 사형소리 여섯 번, 쌍무기를 선고 받으며 기약없는 감옥생활을 하게 된다. 그 후로 최고급 인텔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요한 전향공작과 회유와 협박이 줄곧 따라 다녔다. 결국 전향서가 아닌 "민주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살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90년 추석 무렵 가출옥하게 된다. 돌이켜 보면 나와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판단한 당시의 자신을 후회하기도 했다는 선생님은 하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조국과 민족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부단히 자신을 다그치며 살아오셨다.

90년, 30여년의 감옥생활을 뒤로 하고 가출옥한 후 10여년을 전라도 광주에 살고 계시는 서옥렬 선생님.

꼭 필요한 세간 놓고 혼자 누우면 꼭 들어차는 단칸방에서 홀홀단신 10여년을 의연히 사셨던 선생님께 작은 변화가 생겼다. 지난 6월 11일 보증금 2백 50만원에 13평짜리 영구 임대 아파트로 이사가는 날, 주변에 자식들처럼 가깝게 지내는 젊은이들과 이사집을 싸는데, 선생님의 재산 1호는 출옥 후 하루도 빠짐없이 빼곡히 채운 일기장이었다. 자취생 살림보다 규모가 작았던 선생님의 청빈함이 가슴을 아프게 '쿵쿵' 찔렀다.

그 날 선생님은 큰 맘 잡수시고 손바닥만한 라디오 겸용 텔레비전 대신 중고 TV와 비디오를 구입하셨다. 왜냐면 바로 뒤에 있을 역사적인 6.15남북 정상회담을 생생하게 지켜보실 계획이셨다.

광주시 각화동에 자리한 아파트는 길은 허름해 보였지만, 안은 미리 손 본 덕분에 깔끔했다. 배란대로 통풍도 잘 되고 온수가 나오는 욕실이 있는 것만으로도 선생님 생전에 제일 편히 살아보는 시설이니까.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붕어빵과 같은 빵 종류나 떡이다. 아니 특별히 즐겨하시는 음식을 물으면 모르신다고 한다. 줄곧 감옥에서 지낸 세월을 떠올리는 남자 분 혼자서 끼니를 때우시니 대충 굶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부실하게 잡수기 일쑤다. 손님이 찾아오거나 가끔 밖에서 대접받는 식사가 유일하게 선생님이 드시는 영양식일거다.

선생님은 지혜와 지식의 창고다.

고문 후유증으로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었는데도 매일 신문, 뉴스, 시사잡지를 훑어 보시고 각종 자료를 메모하고 스크랩 하신다. 5개 국어를 하시는 터라 국제문제나 경제문제를 보는데 도움이 될만한 책을 번역하시기도 한다.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는 모습이 바로 선생님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보고가 아닌가 싶다.

아마도 고려대 경제학과-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원산교원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원 출신인 산생님의 약력이 해박한 식견을 짐작케한다.

선생님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진 아이 같기도 하다. 작은 일에도 감동하실 줄 아는 분이다. 주변 사람들의 아픔이나 슬픔을 자신의 일처럼 함께 걱정하고 나누는 품이 넓으신 어른이다. 쉽지만은 않은 인생 길에서

함박웃음과 너털웃음을 잃지 않으신 선생님이 늘 회상하며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

지난 97년 1월 당신의 고회 때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정성껏 마련해 준 조출한 칠순 연이 있었다.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백여명 이상 모여 '외로운 늙은이'의 칠순을 축하해준 일이다. 아니 신념을 굽히지 않고 오로지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오롯이 한 몸 던지며 한 길을 살아온 늙은 전사의 칠십평생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마치 아들, 딸, 손자, 손녀처럼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이며 조용히 하지만 잔잔한 감동으로 꾸며졌던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지신다고 한다. 나와서 뭔가 의미있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으로 간단한 서약서를 쓰고 출옥한 이후 한 시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자신을 다그쳤던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한다.

늙고 쇠약해진 몸, 돌보는 이 없이 혼자서 자신을 추스려야하는 상황에 놓인 서선생님의 올 겨울은 어쩌면 더욱 춥고 시릴 지도 모른다.

선생님은 아직 북으로 송환되지 못한 남은 장기수 선생님들과 뜻을 모으고 2차 송환을 준비하실 계획을 비추셨다.

노벨 평화상소식으로 떠들썩하다. 그 영광된 수상 장면과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교차되고 있다. 그리고 이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 30여 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서옥렬 선생님 모습도 함께 나타난다. 조국통일 염원으로 반평생을 살아오신 선생님이 신념의 고향,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하루 빨리 가시게 함으로써 평화상은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윤정 / 김준배 열사 추모사업회 회장

“선생님은 자신의 신념에 철저한 분이시지요.”



땀위를 스치는 겨울바람이 약간은 쌀쌀했지만 아침햇살 고운 11월 28일 오전, 서울 문정동에 있는 나창순 선생님(68세) 댁을 찾았다.

지하철 역에서 나창순 선생님의 부인이신 임효순님(67세)께 전화를 드리고 댁의 위치를 물은 후 약간의 헤매임 끝에 어렵사리 선생님 댁을 찾을 수 있었다.

사모님께서는 문 밖까지 나오셔서 반갑게 맞아 주셨다.

선생님사건 이후로 그 충격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바깥출입을 잘 못하셨다는 사모님께서는 지금은 광주에 계신 선생님 건강을 걱정하셨다.

“얼마 전 광주로 가신 뒤 바로 면회를 갔었는데, 가 보니 선생님이 얼굴도 퉁퉁 붓고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신 것 같았어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북에) 병든 노인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어 두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 너무 합니다.” 선생님께선 지금 부정맥, 퇴행성관절염, 위염, 고혈압 등 6-7가지 병을 가지고 계시며, 특히 혈압이 200/160 정도로 아주 높아서서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 사모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선생님 건강이 가장 걱정이예요.”라고 하시며 수심에 잠기셨다.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길

선생님께서는 충남 강경에서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인테리어와 건축업에 종사하시며 동생들을 공부시키셨다고 한다. 사모님께서는 “선생님은 정신력과 인내심이 누구보다 강하신 분 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철저하신 분이시지요. 당신이 옳다고 믿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 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라고 하신다.

사모님이 선생님을 만나신 것은 사모님이 25세, 선

생님이 26세 때 였다. 당시 사업을 하시던 선생님을 중매로 만나셨는데, 사모님께서는 결혼 당시 선생님께서 운동을 하시는 분인지,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신념을 가지신 분인지 꿈에도 모르신 채 그저 일반적인 사업가인 줄로만 아시고 결혼하셨다. 그런데 결혼한 후 알고 보니 남편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시는 분이셨고, 그 후 슬하에 2남 2녀를 두시고 평생 살아오시는 동안 언제나 가정생활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살아오셨다. 아무리 삶의 조건이 어려워도 자신의 신념을 일시적으로 유보하실지언정 결코 그것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다는 선생님. 사모님께서는 그런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어도 그 분의 뜻이 옳은 것이기에, 그리고 그 불굴의 신념과 고집을 막을 길이 없어 그 분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오셨다.

말없이 북으로 가신 선생님

선생님은 떠나실 때, 사모님께 알리지 않으시고 가셨다.

“정말 충격과 서운함을 느낀 것은 지난 99년 선생님이 북경에서 열린 〈민족 대토론회〉에 참석하시기 위해 떠나셨을 때 였어요. 그 양반은 그 길로 바로 북으로 들어가셨지만요. 저는 거길 가셨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요.”

아무 말도 없이 북경으로, 그리고 북으로 가신 선생님. 꿇어진 조국의 허리를 다시 잇고자 북으로 가신 선생님의 그 걸음이 아무리 정당했어도, 사모님께서는 아무런 언질조차 없이 가신 남편에 대한 야속함과 서운함이 남을 수 밖에 없었다.

“그게 몇 일인지, 아마 7월 말인지 8월초인지 그런 것 같은데, 그 날 아침에 이 양반이 짐을 싸기에 어디에 가시려느냐고 여쭙었더니 부산 친구 집에 몇 일 갔다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지요. 근데, 아 글썄, 한 2주 쯤 지났을까, 어느날 TV를 보는데 거기 평양에 계신 선생님이 나오시지 않겠어요? 난 이게 웬 청천벽력인가 싶었지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 이제 저 양반이 저기 가서서 살려고 나한테까지 속이고 저길 가셨나보다' 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또 한참 있다보니 국정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거기 (국정원) 계시다구..." 그 사건의 충격으로 해서 사모님께서서는 고혈압과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는 병을 얻으셨다. 이젠 조금은 나아져서 목소리가 좀 나오신다는 사모님은 지금은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면서도 병든 선생님을 그대로 감옥에 방치하는 정부의 처사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하신다. 그리고 덧붙이시는 말씀은, "내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아무리 법을 위반해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그렇지, 가족이 서울에 사는 사람을 광주로 보내고 부산이나 광주에 사는 사람은 또 !

멀리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러는 처사는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멀리 보내면 가족은 어떻게 면회를 다니라는 건가요? 가족까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면회다니는 가족의 편의는 좀 생각해 주어야지...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불교인권위의 <올해의 인권상> 수상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언제나 가정에는 소홀하신 아버지께 불만도 많았지요. 그렇지만 이젠 아버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님의 건강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하루 속히 나오셔서 치료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그래서 최근 지금 베트남에서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의 따님 나하나(37세)씨가 인터넷으로 병으로 위독하신 아버님의 석방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냈고 그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서면 답변을 받으셨다.

"지난 번에도 범민련사건으로 구속되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1년 2개월로 나오셨지요. 그 때 국정원에서 고문으로 얻으신 부정맥으로 지금도 고생하시는데, 지금은 거기다 퇴행성관절염,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이 겹쳐서 더 안좋은 상태예요. 어쨌거나 아프신 양반인데 빨리 나오셔서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선생님께서는 이번 12월 19일에 불교인권위

원회에서 주는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시게 되었다. 당시 함께 방북하셨던 이성우님(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의장)과 함께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신 것이다.

편찮으신 선생님께서 감옥을 나오셔서 그 상을 직접 수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모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선생님 맥을 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사모님을 뵙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조국통일"이라는 신념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그 가족에겐 또 다른 정신적 폭력이 될 수도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서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폭력의 가해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불행한 조국의 현실, 그 현실 위에 독버섯처럼 피어난 각종 악법과 제도들, 그리고 그 현실을 이용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 모두가 고통의 공동 가해자들이다. 가족의 아픔을 알면서도 조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또한 아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 세상에 자기 부모님이, 자기 아내와 자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삶의 밤 길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오신 선생님의 삶을 생각해 봤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북경으로, 북으로 가셨을 선생님의 심정과 평생 그런 남편과 함께 살아오신 사모님의 마음도...

연로하신 선생님, 사모님이 걸어오신 가시밭 길, 그러나 아직도 엄혹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선생님을 가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올해로 제정 52년이 되었다. 대통령이 인권상과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나라에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통일적 악법이 있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에는 꼭 국가보안법이 없어져 하루속히 선생님께서, 그리고 감옥의 많은 양심수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안윤정 / 양심수후원회 회원

사슴같은 눈망울로 참 세상을 꿈꾸다

지난 6월의 어느 날 종로구 연지동의 한우리교회에서 행사를 마친 후 우용각 선생님께서 나의 눈치를 슬며시 보시면서 혼잣말을 하셨다.

“이거 말이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애신이 그 자식이 있는 가젠데 말야.”

이렇게 노상 입에 달고 사시던 따님이름을 꺼내신다. 은연중 심통은 목구멍으로 타고 오르는데 겉으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세요, 저도 개가 보고 싶네요.”

선생님 특유의 환하고 겸연쩍어 하시는 표정으로 가는 내내 애신이 ‘그 자식이 말야’를 노래하시는 선생님의 뒤를 따라 청량리역 근처의 ‘위시’에 들어서니 ‘주인공’은 손님을 상대로 상담에 ‘열중’ 중이었다. 악세사리 가게가 죄다 그렇듯 정신없는 실내를 휘 둘러보는데 그제 서야 선생님을 발견하고는 반색을 하며 다가오는데 착감기는 다정다감한 말투가 무척 정겹게 느껴진다.

“아아니, 아버님이 여기 웬 일이야?”

근처 찻집에서 부녀간에 주고받는 알콩 달콩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저러니 선생님께서 허구헌 날 ‘애신이 그 자식이 말야’이러셨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에서 하는 말이지만, 나는 그 날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였다. 아버지와 딸은 자기들끼리 즐겁게 노는데 바빠 찬밥 덩어리가 하나 곁에 있는데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니 말이다.

‘여름이 엄마’로 더 유명한 애신이와 선생님과의 인연은 1991년 초겨울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그 때 당시 전대협5기 의장이었던 송갑석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때 애신이는 송갑석에게 장기수 선생님들 중 의지가 굳고 존경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하여 우용각 선생님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곧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면모와 따뜻한 내면에 끌리게 되었다고 한다. 생일 축하카드와 연하장을 보내 주시고, 또 결혼할 때는 화환을 종이에 그려 보내주셔서 그것을 식장에 장식하였더니 사람들이 매우 신기해하기도 했단다.

꽃씨를 보내달라는 말씀에 꽃씨와 채소 씨를 구해 넣어드리면서 따뜻한 햇살 아래 작은 삽을 들고 텃밭을 가꾸시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 여름이

에 대한 큰 사랑을 느끼면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깨달으며 빨리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절실히 생각하였다. 결국 꿈 같던 바램은 현실로 되어 올 9월 선생님께서는 사상과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셨으며, 이 땅에는 또 하나의 이산가족을 낳게 되었다. 아버지를 그리는 딸의 애달픔은 다음의 편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는 아버님이 너무나 보고싶은데 이 딸이 보고 싶지도 않은가요? 국방위원장에게 데모를 해서라도 딸을 초대하셔야 하지 않나요? 이산가족 만들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번에도 모른 채 하시면... 알죠?’

선생님의 생신 날 처음으로 봤던 애신이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이고 활달하며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연 나는 주눅이 들며 밀릴 수밖에.

그의 거창한(?) 학생운동 경력을 먼저 접하다가 애신을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의외로 맑고 순수한 그 눈빛 때문이다.

찰랑대며 잔잔한 동그라미를 한없이 만들어가는 호수처럼 금세라도 넘칠 듯한 정감어린 시선은 보는 사람을 한없이 끌어들이게 하는 마력이 있는 듯하고, 이화여대 단대 부학생회장장과 총학의 복지부장을 겸임했으며, 전대협4기 사무국산하 특별기구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으로 활동 중 90년 10월 안기부에 의해 구속, 이듬해 4월 출소하기까지 학생운동의 중심에 서서 맹렬한 활약을 해 왔던 애신이는 지금 철저한 생활인의 모습으로 기

정과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편지가 한 번 왔는데 자기도 외롭게 살았다면서 할 아버지도 상당히 고생이 많았는데 도울 일이 없느냐 해요. 그 뒤 두어 번 면회도 하면서 친해 졌어요. 아들 둘 잔치 사진도 받아보고 감옥에 있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됐지요. 양아들을 삼은 것은 아니지만 외로울 때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여름이라고 이름을 지어 보내주기도 했지요.”(비전향장기수 백서 - 우육장 선생님편)

이 글은 선생님께서 애신이와 그의 남편인 최기영에게서 처음으로 편지를 받으셨던 그 때 당시를 회상하신 글이다. 58년 체포되신 이래 사고무친의 남녘 땅에서 3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바깥과는 단절된 삶을 보내시다가 뜻밖의 편지를 받으셨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서른을 갓 넘겨 영어의 몸이 되셨던 선생님은 북녘의 고향에 두고 오셨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젊은 아내, 그리고 네 살 막이 아들을 무척 그리워하셨으리라.

그러한 그리움 끝에 만나게 되었던 젊은 부부와 또 그들의 아이를 통해 가정의 단란함과 행복을 느끼시며 무한한 위로를 받으셨다고 한다. 선생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은 다음의 일화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생님을 알게 된지 서너 달되던 어느 날 아침 안부전화를 드렸더니 난처한 일이 있다며 말씀을 꺼내시는데,

“...난처한 일이 있어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알게 된 녀석인데 말야, 여름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준 아이 엄마지. 그런데, 아 이 녀석들이 가만 보니까 교육보험도 하나 안 들은 눈치더라 말이지. 그래서, 내가 교육보험이나 하나 들으라고 돈을 조금 줬더니, 받아가서는 재네 들끼리 고민을 했던 모양이야. 그러더니 거기다가 돈을 더 보태서는 그 정순덕 선생 있지? 그 병원비로 보냈다는 거야. 민가협이 소연이가 전화를 해서는, 선생님, 왜 영치금을 쓰시지도 않고 모아두셨어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아차 했지. 그 뒤로는 말야, 전화를 하면 반갑게 받기는 하는데 영 이상한 거야. 어째야 화해를 할꼬, 고민 중인데 조금 있으면 여름이 녀석 생일이야, 그래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단 말야? 이 녀석들이 초대를 하나 안 하나, 하구...”

여기에 대해 훗날 애신이는 이렇게 회상했다.

“감옥에 계실 때 조금씩 보내 드린 영치금을 하나도

안 쓰셨던 것 같애. 그래서, 아 이 분은 돈을 드리면 안 되겠구나하고 생각했어. 차라리 필요한 물건을 사드리는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나오시고 나서부터는 돈을 안 드렸어.”

최여름, 9세.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선생님께서 남쪽 손자라고 부르시며 무한히 사랑하고 계시는 꾸러기이다. 여름은 할아버지를 환송해 드리기 위해 이틀이나 학교를 결석하게 되었는데, 이 아기가 담임선생님께 하였다는 말이 걸작이다.

“우리 할아버지가요, 북한에 가시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가요.”

혼자 자라는 아이가 안쓰러운 만큼 엄마아빠의 소망과 기대는 그만큼 더 간절한 법인가 보다. 혼자이기에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심으로 뭉쳐질까봐 다양하고도 풍성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무척 신경을 쓴다고 한다. 아이가 장래 한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애신이는 그 이유를 묻는 나에게 이렇게 답한다.

“나는 한의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여름이가 장래 한의사가 되었으면 하고 있어. 그래서, 민중탕제원의 어른들처럼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봉사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늦가을의 경희대 사범대를 올라가는 오솔길은 단풍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뿜어내는 처연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게 하고 있다. 사회변혁을 꿈꾸며 청춘을 바쳐 질주하던 어제의 혁명기는 이제는 세월의 연륜이 가라앉힌 차분함으로 말을 잇다가 끝내 목 매이며 머언 추억속으로 빠져든다.

하마나 기억을 하고 계실까. 아니면 너무나 행복하셔서 울고 서있는 딸을 잠시 한 곁에 제쳐 두셨을까. 연고자가 아니라 하여 편지를 전해 주지 않아 같이 항의하던 여러 달만에 정상적인 편지왕래를 할 수 있게 되었던 일이며, 대전으로 갈 때마다 집 뒤의 교도소 담장 너머로 끝없이 외쳐 부르던 그 때의 애타는 음성들을... 잊지는 않으셨으리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시기를 바라는 애신의 젖은 두 눈에는 여러 세월을 거쳐 흘려어도 꺾이지 않는 기개가 일렁이고 있다. 꿈에서도 바라는 참 세상을 갈구하는 외침이.

송지영 / 양심수후원회 회원

“형님!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일요일인데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다. 도봉산 산행!

그런데 밖을 보니 비가 오지 않는가. 바가 오면 안되는데...

정병도(97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어머니께 전하였다.

“형님!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갈까, 말까를 한참 의논했다. 가는 걸로 결정했고, 김밥(각자의 도시락)을 들고 도봉산역 도착,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역에서부터 우리가 모이기로 한 장소로 가는 길 양옆에는 그야말로 화려한(?) 먹거리 골목이었다. 언젠가 동대문 광장시장갔다가 이런 먹거리 골목도 있었나 놀란 적이 있었는데 여긴 더한 것 같았다. 맛있겠다 생각하며, 구경하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올라가니 모두 와 계셨다.(미안했다.늦어서)

보고 또 보고 날마다 뵈는 분들인데 왜 그리 반가운지 그냥 좋았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더 많이 사랑하는 남동생, 여동생들, 아들, 딸들 그런 느낌의 우리들이다.

정병도 아버님, 어머니 마지막 도착으로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 회장님의 선두로 산행은 시작된다. 걱정이다. 여기서 만나기로 한 신영태(미국 중부 오클라호마대학 정치학) 교수님이 안오신다. 산을 오르면서도 내내 걱정이다. 안 오실 분이 아닌데. 늦게 와서 헤매시면 어떻게 하나. 한참을 오르다 보니 신교수 도착. 어떻게 알고 이 길로 오셨냐니까 웬지 이 길로 오고 싶었다.

여러 갈래의 등산길을 다 접어두고 우리가 올라왔던 그 길로 올라오신 것이다. 역시 우리들은 끌리는 게 있고, 통하는 게 있나보다.

마음껏 웃고, 말하고, 떠들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진작부터 후원회 산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형님(병도 어머니)께서 관악산을 함께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빠지지 말고 ‘갑시다’, 그래서 시작한 산행. 몸 건강, 마음 건강 일석이조다.

일찍부터 내린 가랑비는 보슬비로, 보슬비는 우리를 위해서인지 말끔히 그쳤다. 안개도 거쳤고. 산이 있기에 산에 오른다는 말처럼 오르막길, 내리막길 반복하다보니 그야말로 우리들 세상! 이종린(범민련 의장) 선생님께선 80 연세인데도 청년보다 더 힘차게 앞장서신다. 김수룡(헤밍웨이)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젊은 청년들 앞에 서시고. 권주환 선생님이 많이 걱정됐다. 다리도 편찮으신데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그 선생님 역시 흐트림없이 정상까지 오르신다. 해발 600m가 넘는 우이봉이다.

중간 중간 쉬는 시간, 역시 환상적. 각자 세운 듯한 바위는 하늘을 닿을 듯이 서있고, 속으로 '바위처럼' 노래가 생각났다. 또, 맨 몸으로 거울을 건더 보겠다는 듯이 잎을 낙엽으로 만들어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가지만 앙상한 나무들, 그 낙엽들은 바닥에 방석이 되어 쌓여있었고, 우린 그 위에 사정없이 미끄러져도 그저 기분 좋았다. 더더욱 장관인 것은 앞, 뒤 양 옆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이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아! 멋있다. 감탄 연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점심시간.

취미가 '무조건 먹기'인 나는 역시 무조건 좋았다. 찰밥, 김밥, 만두, 과일... 등, 거기다가 동동주 한 잔. 값비싼 음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배고픈 우리에게겐 진수성찬이었다. 각자의 도시락을 펼쳐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나뉘가며 먹는 재미,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산행 아니면 느껴보지 못하리라.

식사도중 갑자기 북에 가신 장기수 선생님들 생각이 났다. 이 자리에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어느 누구보다 가슴 따뜻하고, 마음 여리시고, 또 무엇보다도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할아버지시다.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길 기도한다.

즐거운 식사시간 끝나고 휴식시간(운동시간). 이정태 경당 관장님에게 기본동작을 배웠다. 기본동작이라 쉽게 생각했는데 쉽지만은 않았다. 어렵게, 어렵게, 폭소 연발. 오늘 산행 멤버는 20대 청년에서 80대 선생님까지. 그렇지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이기 때문에 한 마음 한뜻으로 어울릴 수 있는 우리들이다. 80대는 20대의 마음으로, 20대는 80대의 마음으로...

식사시간 끝, 휴식시간 끝. 이제 자기 소개시간이다.

자기들만의 개성으로 멋지게, 폼나게, 짧게 소개가 끝나니까 어느 선생님께서는 "욕 봤소"하신다. 또 한번 폭소, 이제 그 선생님 소개 차례, 젊은 회원이 뒤에서 "선생님! 욕보실 차례입니다" 우린 또 웃는다. 소개중 가슴 찡했던 이종린 선생님의 말씀.

"난 이제까지 처자식에게 아무 것도 해준 게 없다"라고. 평생을 민주화운동 하시면서 그 가족을 얼마나 외롭게 하셨을까? 하지만, 사모님과 선생님의 자식들은 외롭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선생님의 '아무 것도 해준 게 없다'란 따뜻한 그 마음이 있으셨기에...

이런 저런 행사 끝나고 올라올 때와는 달리 내려갈 때는 내 몸매(?)와는 상관없이 날랐다. 가벼운 마음으로. 뒤풀이.

동동주 한 잔 하고 헤어지기로. 몇 분 선생님들은 다른 행사 때문에 먼저 가시고, 일행은 한 식당 방에 자리를 잡았다. 찌개가 나오고, 향아리 동동주가 나오고... 노래시간이 있었다. 서로들 못한다고 사양하지만 시작하면 가수 못지 않다. 신영태 교수는 죽어라 죽어라 사양하더니 '메기의 추억'을 한 잔해서인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인지 어눌한 솜씨로 잘도 부르신다. 신현익 회원의 세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노래 역시 일품!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병도 어머니) 부부는 마치 초등학교 짝처럼 순수 그대로, 나란히 팔짱을 끼고 부르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정석두 회원님의 그 구수한 노래 다음 산행 때도 들었음 좋겠다.

이렇게 양심수후원회 11월 산행은 흐린 날로 시작되었지만, 맑게 개인 초겨울 날씨 속에 즐겁고 정겨웁게 오늘의 역사를 만들고 있었다.

조순덕 / 민가협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부회장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장에 있으면



사진/임종진

나같이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꺼려하는 평범한 소시민의 눈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일들이 있다. 올해 산지 배추 값은 말 그대로 똥값이라 발을 갈아엎는 것이 출하하는 것보다 손해를 덜 본다는데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올 김장 배추 값이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턱없이 싼값은 아니란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한다고 정부가 해마다 부산을 떨었지만 나아진 것이 없고 올해는 그런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당쟁과 당파 싸움은 21세기에 와서도 여전한데 그것은 동인 서인 소론 노론하던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역사가 아닌가! 스스로 문민정부라 칭하고 한때나마 변화의 희망을 주었던 새 시대는 절망의 밀레니엄을 예감케하는 것만 같다.

남북의 두 정상이란 만난 지도 반년이 돼가고 오늘도 북녘의 금강산에는 남측의 관광객이 오간다. 또 어떤 기업은 북한에서 공장을 지어 그곳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업도 한다는데 한쪽에선 고무찬

양죄니 불고지죄니 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후 내가 집사람에게 건넨 최초의 말은 ‘올해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열리지 않겠네’ 였다. 사실 용인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잘 안 되는

공연장에 간다는 것도 그렇고, 온갖 악조건 속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안쓰럽고, 한양대에 열렸던 시와 노래의 밤에 학교를 포위하고 있던 전경들에 대한 기억, 공연도구를 빼앗기고 공연장소를 구하지 못해 장소를 옮겼다는 얘기, 특히나 젊은 사람들도 쉽사리 그만 둘 만한 일들을 해가기도 식지 않는 용기와 열정으로 싸우시는 민가협 어머니들의 통분의 세월을 이제는 보상할 때가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비슷한 희망이 있었다. 장기수 선생님들이 모두 나오셨으니 올해는 죄질(?)이 그보다 가벼운 양심수들도 모두 석방시켜 주겠지 하는 기대를 품었었다. 하지만 농민들을 여전히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고, 후안무치한 정치인들은 오늘도 파렴치한 정쟁 속에 뒹굴고 있지 않은가? 국가보안법의 철폐에 탄지를 걸며 우리 스스로가 자유로운 사상과 생각을 옥죄도록 만들지 않는가? 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조리가 변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 속에서 희생됐는데도 상황은 여전히 비관적인가? 배추밭을 갈아엎어야 하는지 나

2000년 11월

양심수 회고록

다 팔아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는 농부처럼 나는 가끔 이 나라에 대해 체념해야 될지 아니면 분노해야 할지 망설일 때가 있다.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장에 있으면 이런 분노가 한데 모이고 하나의 거대한 외침으로 솟아오르는 것이 보인다. 공연장 가득히 울려 퍼지는 Rock음악의 떨림이, 모여든 수백 수천 사람의 가슴가슴마다 똑같은 진폭으로 울리고 그 울림이 온 거리로 퍼져나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슬픔은 위로 받고, 꺾박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함께 나누어 가버워지고, 절망스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듯하다.

작년 공연 때는 날씨도 몹시 추웠고 그런 추위 속에서 아직도 감옥에 많은 양심수가 있다는 사실이 가슴아팠지만 그래도 석방되신 많은 장기수 선생님들이 공연 행사에 참여하신 것만 봐도 즐거웠다. 그런데 올해는 날씨는 폭했지만 국가보안법 철폐가 불투명하다는 우울한 소식만 들리는 데다가 장기수 선생님들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공연장 들어서는 마음이 작년만 같지 못했다. 더구나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힘없는 약자만이 내몰리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지 못하리란 걱정이 있었다. 좌석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봐도 선입감 때문인지 이런 공연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너무 어려 보이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내 판단 착오였다. 공연이 절정을 향해 가면서 수천명의 관중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남들처럼 주위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오게 해서 내가 느꼈던 이 감정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평소에 가요나 Rock 음악을 즐겨 듣지 않고 또 쉽게 마음이 동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조용한 관객객으로 앉아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공연이 절정에 이르

자 번번이 내가 지고 만다. 옆에 앉은 우리 아이들도 이런 공연을 이날이 아니면 와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하게 다소 어리둥절하고 신기하게 보고 있다가, 복으로 송환된 장기수 선생님들을 취재한 화면을 볼 때서야 '아, 저기 조창손 선생님이다. 아빠, 저건 이종환 할아버지야!' 하며 반가운 선생님들의 이름을 외친다. 그분들이 남기고 간 따뜻한 손길을 나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선생님들이 왜 저기에 있는지 자꾸 묻는데 뻔죽하게 대답해 줄 방법이 없었다.

이제 공연은 끝났고 사람들은 저마다 함성을 지니고 흩어졌다. 그 함성은 그들로부터 다시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노래의 한 구절처럼 '참 세상 자유 위하여' 거센 강물을 저어가리라. 그리고 다음 공연은 분노의 함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축제의 함성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품는다.

프로그램 책자 뒷장에 한 장의 사진이 있다. 감옥 체험 중인 한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감추고 있다. 가슴에는 3111이란 수인 번호가 선명하다. 거친 손과 수의 입은 팔은 오라에 묶여 있고 울음을 억누르느라 여원 목덜미에 힘줄이 보인다. 이 어머니도 이번 공연에 참석하셨을까? 그래서 고통을 나누고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얘기해 줄 수 있는 날이 오면 오늘의 이 함성과, 내가 오늘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없었던 의문들을 내 생각을 앞질러 짐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연장을 나섰다.

이현근 / 양심수후원회 회원

하루하루 품팔이할 수밖에 없는 임시직 노동자들이 폭력으로 거리에 내몰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여러분께

새천년이 시작될 때 살맛나는 세상이 도래할 것처럼 부풀리던 뒤편에는 최소한의 삶조차 박탈된 궁핍한 천만의 빈민이 거리를 헤매이였습니다.

남·북정상들의 공동선언은 꿈인지 생사인지 착각이 일 정도로 많은 이들의 가슴뛰는 환영이었습니다. 장기수 어른신네들 북으로 가실 때 통일이 된 것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남북관계에 관심이 쏠려있을 즈음, 아무런 권리도 자유도 보장없는 하루하루 품팔이할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임시직 노동자들이 폭력으로 거리에 내몰리더니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명이 넘는다는군요.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식 경제체제를 밀어내지 못하는 한 노동의 권리는 박탈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민중들의 삶은 궁핍할 수 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매월 보내주시는 영치금 영수증을 접할 때마다 의장님과 민가협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편지 올려야지 하면서도 기어코 한 해가 저물어서야 인사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 어머님들 모두 건강하십니까. 저는 2년6월을 확정받고 이 곳 원주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당 표방하면서, 뒤에서는 철거민을 비롯한 빈민들을 폭력과 구속으로 탄압하는 정권의 정치가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 거리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철거민들이 주거의 권리를 말하다 구속되고 금년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해 9명이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아주머니들이 몇 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가난한 민중들의 생존권의 실태와 이 나라 인권의 척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느 월간지에서 “양심수를 시와 노래의 밤” 광고를 보았습니다. 수구냉전세력에 밀려 국가보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에 열두번째 열리는 이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항상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는 의장님을 비롯, 민가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천일년 새해에도 의장님 더욱 건강하시고 민주화의 발전에 민가협의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저희들 항상 기억하심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2일

원주교도소에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드림

남경남 전철연 의장님은 철거반대, 민중생존권보장을 외치며 전철연이 진행한 민주당사 점거농성 사건으로 99년 7월 4일 구속되어 원주교도소에 수번 1100으로 수감 중입니다.

01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가협, 범남본, 전국연합, 민주노총, 한총련 등 여러 단체대표들이 2000년 통일대축전 재정결산보고와 대책을 협의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운동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갖다.

 민주당 인권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대철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힘.

 민주당 인권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대철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힘.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이른바 민혁당사건 박종석씨 공판이 열린다.

02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심리로 이른바 민혁당사건 박정훈, 최진수 2차공판. 박정훈씨 모두진술과 검찰의 직접 심문, 변호인 반대심문 진행, 방청했던 대책위 성원들 검찰청 앞에서 민혁당조작사건 규탄집회를 가짐.

 서울지법 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창희(단국대 91년 총학생회장)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결심고판에서 검찰은 3년 징역 구형.

 민가협 352회 목요집회 - 여는말 : 임기란 상임의장, 새만금 갯벌살리기 밤샘농성단 사례, 경희대 강철구씨(?) 구속사례 등

 천주교 장상연합회 수녀님들 네 분께서 12월 2일 ~3일까지 민가협에서 인권연수를 받기로 하여 목요집회 참석, 정순덕선생님 면회, 양심수 면회 등 활동하심.

03  충북 음성 무주에 살고 계신 정순택 선생님께서

민가협 사무실에 배 1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6월4일부터 낙성대 '만남의 집'에 오시어 선생님들 식사를 돌보며 살림을 맡아 해주셨던 김재원님께서 선생님들이 복덕으로 가시고 집이 비우게 되어 그동안 집관리를 해오시다가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오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04  양심수후원회 송창학 회원 외 여러분,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 전면해제를 위한 명동농성장 토요일방문. 매주 토요일마다 정치수배농성자들과 후원회와 함께 수배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전태일열사 30주기 추모사업위원회는 청계천 평화시장거리 전태일 열사가 산화했던 곳에 '이 곳은 영원한 노동자의 벗 전태일이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분신항거한 곳입니다'란 추모 표지판을 설치.

05  민족문제연구소 등 박정희 기념관건립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이 영등포구 문래공원 이른바 5·16쿠테타 발상지에 세워진 박정희 흉상을 34일만에 철거하다.

06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주최로 경희대생 강철구씨 구속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앞에서 규탄집회. 집회가 끝나고 이문옥 민주노동당 부대표와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은 검찰청방문하여 이형철검사를 만나국가보안법 적용, IS탄압, 민주노동당탄압 등 항의, 강철구씨 석방요구.

 영등포경찰서는 박정희 흉상철거와 관련 홍익대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흉상회수에 나섰고 철거현장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4월혁명회 광태영대표를 긴급체포. 민족

문제연구소 김용삼 운영위원장과 방학진 조직부장
에 대한 체포영장신청.

07 평통사 평화아카데미(4회). '한반도 평화협정체
결 방향'에 대해 향린교회에서 강정구교수 강연

08 영등포경찰서로 박정희 흉상철거와 관련 구금되
어 있고 광태영(불구속수사로 이 날 풀려남), 김
용삼씨 면회

낙성대 '만남의 집' 보일러점검-모터파손 확인-

09 민가협 353회 목요집회, 여는말; 권오현 공동의
장. 이관복 박정희 기념관 반대 공동상임대표, 인
터넷방송국 '청춘'; 신봉구·윤여창씨 구속대책
위: 김한나씨 사례발표, 성대 노래단 공연 등

전태일 열사 30주기 극단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관에서 '한강' 제 16회 정기공연.

10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운동연대
(가칭)' 결성을 논의하는 제정당·단체 대표자 및
통일인사 제2차 간담회가 향린교회에서 열림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 부장판
사)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주노총 소속 여성조합원 3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11 이득행, 양계숙 회원들이 오랫동안 비워둔 낙성
대 '만남의 집'을 말끔히 청소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적
배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명동성당 천막농성
단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정치적
배 해제 등 거리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임. 송창
학, 김숙희, 이득행, 양계숙, 이해정, 신현익, 김
호, 이승미, 변의숙, 정창영, 정수진(청주대), 이
창희 회원들이 함께함.

12 전태일 열사 3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주최로 서
울대학교에서 '2000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신
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장.

대회를 마친 20,000여 노동자들은 명동성당까지
거리시위를 하다. 가로막는 경찰과 결렬한 몸싸
움을 하다.

13 전태일 열사 30주기 묘소참배와 추모식이 모란공
원 열사묘역에서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회 주최
로 열린다.

정부중앙청사 뒤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
유치장에 입감과정에서 알몸수색을 당한 부천
소명여고교사 박아무개씨 등 2명은 '부당한 알
몸수색'을 이유로 한강택 중부경찰서장을 직권
남용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14 서울지법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검사)
는 이창희,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 선고공판에
서 2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 선고

'후원회 소식' 109호 발송작업 - 허유정, 장재영,
변의숙, 이해정, 김민정, 이창희 회원 등 애쓰

왼쪽(반신)마비 상태로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서 치료를 받고 계신 정순덕 선생님이 의족의 힘
을 빌어 움직이고 싶어 하시어 서울 '백남의족'
에 문의했으나 현재의 증상에서는 의족착용이
위험하다며 의족맞춤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걸어보고 싶어하시는 선생
님 뜻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 되었습
니다. 더 치료 받으시고 운동 많이 하시어 팔 다
리의 힘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미국반대를 위한 국민행동의 날 준비위원회'는
소파개정과 미군범죄 규탄집회를 미대사관 옆

시민공원에서 잤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현수막을 빼앗아가는 만행을 저지름.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이 '새만금 백지화를 위한 종교인 2천명 생명·평화 선언식' 잤다.

15 민가협 운영위원회 - 조선노동당 창건 55돌기념 초청 방북보고,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등 협의

16 민가협, 유가협 회원 30여명 한나라당사 항의 방문 - 김용갑의원 발언관련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하며 규탄농성 이어 민주당사 방문, 국가보안법 폐지에 미온적 태도 규탄

민가협 354회 목요집회, 여는말 - 임기란 상임의장, 정진 최하란 구속사례 - 인하대 이의철 학생, 살림터 출판사 송영현씨 국정원 연행 - 부인 정창화씨가 규탄발언, 김용갑 발언 규탄성명 - 조순덕 구학협 부회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서경순 전상임의장 등

대전교도소에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중인 하영옥씨 면회(권오헌).

하영옥, 최진수, 이종률, 장희재, 최주영 학생 등 양심수에 영치물. 하영옥씨가 민가협 어머님들과 양심수 후원회원들에게 인사 전해달라 함.

대전 성공회 '나눔의 집' 유낙준 신부님과 김인환 선생님 주선으로 오랜 옥고를 치르고 나와 대전 지역에 살고 계신 허찬형, 김진섭, 최찬근 선생님들 만나 뵙고 복녔 고향과 가족이 있는 분들의 송환의지 말씀드림.

17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박시현 부장판사)는 박정희 흉상철거 혐의로 구속된 김용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

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석방결정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매향리 주민 피해 대책위원장 전만규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또한 매향리 미군 국제사격장 폐쇄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용운, 김용한, 김종일씨에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범국민대책위 고문 추영배씨에게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8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제2차 행동의 날 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100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있었고 명동성당까지 거리시위, 정치집회로 마침

국가보안법 폐지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는 명동성당 농성단과 양심수 후원회, 나라사랑청년회, 한청련 회원 등 국보법 폐지 캠페인과 서명운동 이정태, 이승미, 이창희, 변의숙, 송창학, 신현익, 박인석, 김숙희, 장재영, 이혜정 외 회원들 함께 함.

19 20년 옥고를 치르고 1988년 12월 21일 출소하신 류종인 선생님(민가협 감사)이 모친상(전재인, 89세)을 당하셨습니다. 장례는 화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남민전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옥사하신 고 이재문 선생님의 19주기 추모모임이 인천 천주교 묘지에서 김재원님 등 유족과 친지, 고인의 동지들이 모인 가운데 있었음.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 10주년 기념대회가 전국연합,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민가협, 유가협 등 사회단체 축하 성원들과 청년학생들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림.

20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명동성당 들머리

- 에 새로 천막을 치고 본격적인 철폐투쟁에 들어감
- 21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운동연대' (가칭) 결성을 논의하는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및 통일인사 2차 간담회'가 향린교회에서 있었음 - 명칭, 조직구성 문제 등 협의
-  명동성당 정치수배 농성단 천막에서 국가보안법 관련자 정치수배해제 대책위원회 간담회 갖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전국에서 "100만 농민 총궐기대회"를 갖고 농정실패 규탄과 농가부채 해결을 촉구
-  여·야 소장파 의원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된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대한 수배해제 요청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로 하다.
- 22  민가협 제7차 인권강좌가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남민전사건과 연루 20여년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저자 홍세화씨를 강사로 하여 진행되다.
-  6·25 전쟁때 미군 제1기 병사단 제7기병 연대 제2대대 본부에 배치됐던 로런스 레빈(72세), 제임스 크림(72)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초기 상급지휘본부로부터 노근리에서 피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
- 23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해제 대책위 김영옥, 권오현 대표 민주당사에서 유선호 인권위원장 면담-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촉구
- 유선호 위원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개정 '좋은 쪽으로 개정' 할 것이며 정치수배 여러 가지 해결책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
-  민가협 355회 목요집회, 여는말- 권오현 공동의장, 인하대생 최하란 아버지 최상희씨 사례발표, 11월 14일 노동자대회 경찰폭력 규탄 사례-서울대 권대는 학생
-  양심수 후원회 제12차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 법무법인 '창조' 회의실에서 열다.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안녕, 국가보안법', '2000년 회원 송년모임' 등 논의
-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수송동 '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희생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한 뒤 처음으로 최종길 서울대 교수 등 5명에 대한 사인규명 진정서를 내다.
- 24  서초동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동당 주최로 공안탄압 규탄집회 - 집회가 끝나고 권오현, 최규엽 대표는 공안부 김영만 검사 만나 국가보안법 무차별 적용과 IS 탄압 민주노동당원 구속 등 엄중항의와 석방을 촉구
-  범민련 남측본부, 전국연합,민자통,서울연합 등 사무실 합동개소식이 신길동 사무실에서 각계, 사회단체 대표들의 축하속에 있었음
-  '말' 지를 양심수 5명에게 발송
-  민주당 임종석 국회의원 후원회 밤이 국회 헌정회관에서 있었음
- 25  종묘공원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연대,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 대책위원회,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과 민족특별조사위원회 공동주최로 'SOFA 개정 미국반대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갖고 명동성당까지 거리시위
-  정치수배농성단과 양심수후원회원, 나라사랑

년회원들 명동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정치수배해
제 거리 캠페인과 서명운동 벌이다

※ '옴시롱 감시롱', 새로 이사한 모성룡 회원 집에
서 11월 모임을 갖고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
의 밤'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

- 26 ※ 양심수 후원회 11월 산행 - 민가협 조순덕, 박경
순 어머님과 범민련 이종린 선생님, 미국 오콜라
마하 주립대학 신영태 교수 등 특별한 분들이 함
께한 25명이 도봉산 입구에서 떠나 보문 능선,우
이봉,원통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소개시간을
가짐. 이정태 회원 지도로 몸풀기(운동)를 한 다
음 우이동으로 내려옴. 푸짐한 뒷풀이로 산행 모
두 마침.

- 27 ※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법당 길
상사 기금마련 도자기 서화 전시회'가 웅진갤러
리에서 11월 27~12월 6일까지 열림. 진관 불교인
권위원회 공동대표는 양심수 후원회 감사도 말
고 있으며 통일을 학수고대하는 학그림을 출품.

※ 여야 국회의원 21명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발의하여 국회에 제출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구가보안법 폐지, 인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32개 사회단체 연대
회의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림

- 28 ※ 여야 국회의원 33명은 '북일 수교협상과 관련 일
제식민잔재 청산에 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 을사조약, 합방조약 등 원천무효와 종군위안부
징용징병 등 식민지통치와 비도적 행위 사죄와
반성, 책임자 처벌, 배상을 하고 약탈해간 문화재
반환, 1965년에 맺은 '한·일 협정'이 일제의 식
민지 지배를 합법화 시키는 근거가 되었다며 '불
평등 한·일조약이 북·일수교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한다'고 주장.

- 29 ※ 북경민족대토론회와 평양축전에 다녀와 국가보
안법협의로 1년6개월이 확정돼 광주교도소에 수
감중인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을 특별면
회. 나창순고문은 고혈압과 부정맥증상, 위장질
환 등 건강이 좋지않아 사회진료를 받을 정도였
음. 아직도 얼굴이 붓고 부정맥증상 여전. 교도소
에서는 난방장치된 병사로 옮겨 최선을 다하겠
다고 교무과장 면담때 말하였음. 이어 광주·전
남지역 양심수후원회 기세문, 이운정 공동대표
들과 한총련대표로 평양축전에 다녀와 구속된
황혜로 학생면회.

- 30 ※ 민가협 356회 목요집회. 여는말 ; 임기란 상임의
장, 전농정책국장 ; 농민시위 구속사례, 민혁당
심재춘씨 어머니 편지낭독, 한청련 진상봉대표
국가보안법 폐지연설, 권오현 광주교도소 나창
순 선생 건강사례와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촉구연설.

※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종교인 집
회열리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주최
로 국가보안법폐지문화제 열림,경찰강제해산으
로 명동성당으로 옮겨 정리집회열다. 국민연대
집행간부들 단식농성에 들어가다.

※ 2차 이산가족상봉이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이루
어지다.

※ 양심수 80명에게 영치금 2만원씩 보냄.

※ 출소장기수 고성화, 최상원, 박종린 선생님께 지
원금 드림.

※ 박경순, 김경환, 문재룡 양심수 가족에게 지원금
드림.

한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



지난 11월 26일 명동성당에는 또 하나의 천막이 늘어났다. “6.15 공동선언 전면이행과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철폐를 위한 한총련 중앙상임위원 단식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희대의 우매정부인 김영삼 정권이후 몇 년째 정치적 탄압으로 단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대의원이라는 이유에 의해 대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단과대 학생회장이 당선되자마자 국가보안법으로 수배되고, 수 백명이 구속되고 있다.

다소 젊은 날의 부족함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발전에서 올바른을 위한 청년학생들의 열정과 각오가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국민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기에, 남북정상이 만나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다짐하는 6.15공동선언을 합의했으며, 인권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나라에서 대학생들은 계속 수배·구속되는 등 오늘 한총련에 대한 이례적인 탄압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처

사이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제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스스로 벗고자 공안당국에 의해 가장 주시되어 수배받고 있는 한총련 중앙상임위원들이 단식농성 등 직접 실천에 나서고 있다. 지금 명동성당에는 한총련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 | | |
|------|---|
| 농성단원 | 이희철 - 8기(현재) 한총련 의장(조선대 총학생회장) |
| | 송재혁 - 한총련 조통위원장(창원대 총학생회장) |
| | 윤기진 - 7기 한총련 의장, 범청학련 남측본부 부의장(명지대 총학생회장) |
| | 변재훈 - 남총련 의장(전남대 총학생회장) |
| | 주 훈 - 충청총련 의장(고려대 총학생회장) |
| | 이희중 - 부경총련 의장(부산대 총학생회장) |
| | 박제민 - 서총련 의장(경기대 총학생회장) |
| | 박지원 - 강총련 의장(한림대 총학생회장) |

12월 산행 쉽니다

12월 양심수후원회 산행은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송년모임’ 등 12월 중 행사가 많은 관계로 쉽니다.

정순덕 선생님후원회가 꾸러지고 있습니다.

왼쪽(반신)마비 상태로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정순덕 선생님의 후원회가 꾸러졌습니다. 선생님 건강을 염려하고 복讎송환을 바라왔던 인천지역 사회단체들이 지난 14일 카톨릭회관에서 '장기수 정순덕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정형서 새안의원 원장)를 결성하고, 17일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연합송년의 밤' 때 후원회 꾸린 것을 알리고 본격적인 후원회원 모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무국장으로 있는 이광우 님이 많이 애쓰셨습니다.

정순택선생님 송환추진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충북음성군 무극면에 살고 계신 정순택선생님 송환운동을 펴왔던 대전과 충북지역 여성노조, 청주지역 건설노조 그리고 선생님 송환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모여 '정순택선생님 송환추진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2월 16일 청주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송환추진 준비위원회 결성모임에는 전주, 광주 지역에서 박봉현, 서옥렬 선생님 등 장기구금양심수들이 참석하였고, 청주 민권공대위 정진동 목사님의 축사도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결성을 추진해온 윤태영님이 많이 애쓰셨다고 합니다.

송년모임 소식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0년 회원 송년모임'이 12월 10일 광화문 새서울주물럭에서 출소선생님들과 민가협 어머님들,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들, 후원회원 등 14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던 새 세기의 첫 해, 우리는 존경했던 선생님들을 조국통일의 대장정에서 더욱 큰 햇살을 지피는 마음으로 '또 하나의 조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혹시 송년모임은 가신 분들의 빈 자리로 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는 완전히 기

우었습니다. 장기수 선생님들이 많이들 함께 하시어 자리는 더욱 빛이 났고, 항상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가협 어머님과 소중하게 남을 돕고자 하는 젊은 양심수후원회원들도 흥이 많이 났습니다.

송년모임 1부는 이기욱 부회장님의 사회로 진행되어 민중의례에 이어 권오현 회장의 인사말씀과 오신분 소개, 그리고 이정태 회원이 선생님에게, 김민정 회원이 어머님에게 드리는 글을 읽고,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고성화 선생님과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님께서 답사를 하셨습니다. 2부는 모성룡 회원 사회로 진행하여 민가협 어머님들의 합창, 후원회 운영위원들의 인사와 노래 그리고 이기형 선생님과 김수룡 선생님이 시를 낭송하고, 류정식 선생님이 명창을 하는 등 즐거운 분위기로 이어졌으며, 다가오는 새해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양심수가 없는, 우리에게 모두 밝은 한 해가 될 것을 희망하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합창으로 송년모임을 마쳤습니다.